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

결핍과 강박의  
투사에 관한 작품 연구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김연수



# 결핍과 강박의 투사에 관한 작품 연구

지도교수 이용덕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김 연 수

김연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_\_\_\_\_ 문 주 (인)

부위원장 \_\_\_\_\_ 권대훈 (인)

위 원 \_\_\_\_\_ 박제성 (인)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본인이 결핍과 강박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된 연구이다. 스스로가 세상을 이해하는 필터로써 ‘결핍’을 느끼고, 작품으로 구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세상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그 공포를 채우기 위해 강박적으로 트라우마를 붙잡았다. 그것을 삶에 대한 분노나 우울감으로 끝내지 않고 작품으로 승화시켜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핍을 느끼고 벗어나려는 **결핍 강박**은 연구자에게 하나의 원동력(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재능이 되어갔다. ‘살아있는 자’가 느끼게 되는 당연한 감정 중 하나는 ‘공포’이다. 이 감정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들에게 노출만 되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적응 중에 공포를 느낀다. 이 연구에서 감지하는 공포와 결핍은 세가지로 볼 수 있다. 개인과 사회적 충돌에서 오는 강박증, 동심의 순수함을 잃어가는 불안의 강박증, 객관적인 미술적 태도의 강박증이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작품을 통한 투사로, 스스로 치유되는 과정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작가의 감성적 실체(내면의 슬픔, 분노, 위선, 공포)를 작품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결핍감이 작가의 육체 속에 고인 이물질로 남을 것이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투사되는 과정에서 작품과 작가 사이에도 일련의 벽(경계)이 생길 것이다.

실제 작품은 물질적인 특성상 작가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완전하게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결핍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작품에 생명력으로 부여하는 과정은 작가 자신을 위로하는 과정이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유될 때, 개인적인 행위지만 보편적인 감정일 것이다.

결핍이나 공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공포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게 여길 때 내면의 공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보편의 결핍, ‘공포에 대하여 직면’ 하게 하는 것만으로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연구자의

관점이다. 이를 본인은 미술 치료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정신 의학에서 강조하는 ‘직면’은 미술 치료에서도, 정신 의학 치료과정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미술 치료’의 치유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신 의학 치료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질문지나 내담, 그림 치료 방법들을 실제 적용하였고 그 효과를 체감하였다. 즉, 연구자 자신에게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하였다. 그 강렬한 경험이 이 연구를 지속하게 하였고, 그러한 과정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자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정신 의학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는 질문지 등을 작품과 함께 감상자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실험 과정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 기억에 관한 질문지를 제공하였다.

연구의 주요 주제로는 ‘자본주의와 성’이 핵심이 되었다. 이 주제를 통하여 인간의 삶과 정신적 치유를 논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형성된 개인의 수치심을 치유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향후 연구자는 감상자들과 만나 치유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 안에 존재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갈등, 사회의 부정적 측면은 마치 고름처럼 완벽하게 제거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하여 ‘미술 치료’를 통하여 자연적 치유가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본인은 지속적으로 생명 존중을 표현하기 위한 작업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결핍을 느끼고, 공포로 인식될 때, 이를 공감하며 치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요어** : 결핍, 강박, 투사, 공포

**학 번** : 2013-21204

# 목 차

I. 들어가며 .....	1
II. ‘결핍’과 ‘강박’에 대하여 .....	6
III. 작품으로의 투사 .....	9
IV. 맺으며 .....	55
참고문헌 .....	58
Abstract .....	59

## 참고 자료 목차

[참고 자료 1] 피파바카, <여행 중인 신부> .....	4
[참고 자료 2] 김연수, 질문지와 나의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는 전시장 .....	10
[참고 자료 3] 김연수, 질문지가 있는 전시장 .....	12
[참고 자료 4] 김연수, “당신의 페니스를 다루듯 타인의 가치를 바라보세요. 싸움이 절대로 안 날 겁니다.” .....	14
[참고 자료 5] 김연수, “우리 모두는 인간에게서 나온 인간입니다.” .....	16
[참고 자료 6] 김연수, <NOT FOR SALE> “나는 성을 팔지 않아요.” .....	18
[참고 자료 7] 김연수, “집을 못 사면 결혼도 꿈 꿀 수 없는 시대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	19
[참고 자료 8] 김연수, 전시장에 설치된 감각의 봉오리 .....	24
[참고 자료 9] 김연수, 두 다리 .....	26
[참고 자료 10] 김연수, 댄서 연작이 설치된 전시장 풍경 .....	34
[참고 자료 11] 김연수, 키스 연작이 설치된 전시장 풍경 .....	39
[참고 자료 12] 파브리스 몬테이로, <벽에 걸린 마법의 거울> .....	43
[참고 자료 13] 김연수, ‘만져보세요, 가지고 노세요’ 문구에 반응하는 아이들 .....	46
[참고 자료 14] 김연수, OVER THE FENCE 연작이 설치되어있는 전시장 .....	52

## I. 들어가며

“**결핍이란** 부족한 상태이다.”

“**강박이란** 원치 않는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 심상(心象), 또는 충동이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상태를 말한다. 강박 행동(의식)은 강박사고에 의한 불안을 완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고 느끼는 특정 행동이나 정신적 행위이다.”

“**투사란** 개인의 태도나 특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원인을 돌리거나, 또는 자신의 감정,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심리 현상이다.”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든 감상을 통해서든 인간은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살아간다. 이것만으로도 추함과 본질적으로 구분이 된다. 물론, 그것은 경계가 모호하거나, 판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인간은 미술을 포함하여 시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뇌, 즉 정신은 시각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본 것을 판단하고, 무의식에서조차 보았던 것을 기억한다. 본 것, 보았던 것이란 모든 시각적 자극을 포함한다. 그 가운데 두려움, 트라우마도 포함된다.

본인은 나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미술을 연구하며 깨달은 생각들이 있다. 새를 아무리 사실적으로 그려 보아도 그 새를 날게 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그림으로 묘사하고 형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인간의 담백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서.’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지만,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 행복하듯, 어떠한 사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표현하면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더

후련하다. 이는 연구자만이 느끼는 매우 본능적인 욕구였다. 결핍과 한계를 알지만, 결핍을 넘어서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것, 결핍의 승화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놀랍게도 미술을 대할 때 보편적인 특성을 보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고 싶어 한다. 심지어는 “안 똑같아요.”라며 자신들의 그림을 보며 화를 내기도 한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관찰 대상과 표현한 결과물이 똑같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태도를 발견하였다. 이 현상은 주로 남자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다. 본능적으로 잘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지만, 외부와 내부 세계에 대한 강한 경계 등, 복합적인 감정일 수 있다. 리얼리즘에 대한 강한 탐닉이자 스스로에 대한 강한 의심이다.

내가 아동 미술을 교육하면서 관찰하고 진심으로 느낀 부분이다. 아이들을 통해, 내 안에도 그런 강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단순히 잘하고 싶다는 욕망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작품과 나 사이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두려웠다.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 강박적으로 작업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럴수록 느껴지는 것은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동심을 잃어가는 불안의 강박증. 아이들은 선생님을 타인의 눈으로 의식하며 스스로의 작품을 판단하고 가혹하게 평가한다. 그것이 나에게도 존재하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이드(id)’라고 표현한다. 이드(id)란 1)원초적인 무의식. 접근하기 어렵고, 이기적인 욕구가 지배적이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나 바로 요구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사회의 형태에 적응하기 위해, 이드의 욕구를 스스로 억압하는 방법을 배운다. 미술가들이 작업을 진행하며 느끼는 창작의 고통은 이드와의 싸움과 가깝다. 동물을 그리는 것은 매우 본능적인 인간의 미술 영역이다. 인간과 다르지만 명백히 살아있는 존재를 관찰하고 본질을 담아내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린이들은 동물을 그리는

---

1) 루스베리, 『30분에 읽는 프로이트』, 중앙M&B, 2003, p.108~121

행위에 흥미를 느낀다.

본인은 오랜 기간 아동 미술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있다. 수업 중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호랑이를 그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남자 아동의 경우, 호랑이를 그리면 호랑이 자체를 상상하면서 때려눕히거나, 사인펜으로 호랑이 눈을 내려치는 등의 말과 행동을 한다. 상상이라도 무섭기 때문에 통제하고 싶은 것이다. 반대로 여자 아동은 대부분 맹수를 그리더라도 리본을 달아주거나 옷을 입힌다. 이것은 일종의 평화의 상징이다. 자신이 미술을 통해 창조한 ‘이것’ (도화지 속)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관찰한) 그 호랑이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다. 결국, 아이들은 실체를 표현함에 있어 자기 안의 정보, 경험, 두려움,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해, 실체는 표현을 통해 ‘고유한 다른 것’이 된다.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는 것은 경험이지만, 스케치북에 호랑이를 그리는 것은 사실적 경험 그 이상의 의미이다.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동 미술 교육자들은 왼손으로 그리는 연습을 한다. 눈높이를 아이들의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다.

시각 예술은 ‘표현하려는 본능 그 자체의 출발점’이고, 어떤 맥락 속에서 세상에 던져진다. 보이지 않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 적극적으로 교감해야 하는 것이다. 같은 것(작품)을 보고 있지만, 한 편으로 그 작품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아이들의 마음과 똑같이 느껴진다. 이로써 작가가 느낀 결핍의 감정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떤 누구라도 경험을 떠올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지가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큰 범주에서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보편성’이라는 경로로 미술 행위가 공유 가능한 때



개체임을 강조하고 싶었다.



[참고 자료] 피파 바카, <여행 중인 신부> (Brides on Tour),  
22.5 x 30cm, 2008

보편성과 관련된 좋은 예시로 ‘피파 바카의 사진 작업’을 들 수 있다.

2) 피파 바카의 유작인 <여행 중인 신부>(Brides on Tour)(2008)는 여전히 논쟁과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작품이다.

<여행 중인 신부>는 ‘피파’와 동료 예술가인 ‘실비아 모로’가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보와 히치하이킹만으로 전쟁으로 파괴해진 지중해 연안 지역들을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행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다. 그들이 방문하는 국가의 상징들을 수놓은 흰색의 신부 드레스는 순수와 순결, 분쟁과는 반대되는 ‘사랑과 연합’을 상징한다. 그가 신었던 하

---

2)심상용, 김태서, 『누락된 의제 - 오디세이,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길목에서』,  
대구 사진 비엔날레, 서울대학교 미술관, 2021, p.70

이혈은 ‘평화란 결코 쉽게 찾아오지 않음’ 을 상징한다. 히치하이킹은 먼저 선과 믿음을 보임으로써 인간에 깃든 평화와 사랑의 존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전쟁으로 피해를진 지역 주민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예술과 치유라는 분열된 가치의 연결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이스탄불까지의 여정은 순조로웠으나, 이스탄불을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 피파 바카는 납치되어 강간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다. 범인은 이미 전과가 있는 현지인 남성 무라트 카라타스였다. 범인은 길가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피파를 태워주면서 강간하고 살해한다. 결국에는 <여행을 떠나는 신부>는 완결되지 못하였으나, 그렇다고 실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실패 이전에 통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을 전복하였다.

다시 연구로 돌아오면, 본인은 화두인 ‘치유’ 를 가장 행복한 방식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본인에게도 화두에 대한 의심이 오기 시작하였다. 피파 바카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었고, 치유를 꿈꾸었다. 그러나 퍼포먼스 중 전과자에게 강간, 살해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본인은 세상과 사람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자기 치유력을 믿고 싶다. 그럴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다.

미술은 행위 자체로 큰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 예로, 피해 아동이 그리는 범죄 현장, 가해자에게 느끼는 감정의 표현은 장식을 위한 미술이 아니다. 사실대로 묘사하는 미술 행위를 통해 기억에 직면하는 것으로써, 그 효과가 좀 더 부드럽고 안전하기 때문에 쓰이는 접근법이다. 마치 소설 속 인물을 통해 감정을 대리 경험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면 너무 충격적이고 불편할 때 그림을 그린다.

대부분 반드시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추상화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와 비슷하다.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하고 싶은 열망, 그 영역이 인간 사회에는 늘 존재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이 오랫동안 불편한 기억이나 경험에 머물러 있는

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sup>3)</sup> 이러한 현상은 ‘반복 강박’이라고 지칭하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예상하지 못한 충격 후에 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복 강박이 마치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죽음의 공포, 본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타나토스’라고 한다. 이는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게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이다. 타나토스의 반대는 ‘에로스’이다. 에로스는 삶의 본질이자 종족 유지 본능이다.

본인은 인간들의 속성 중의 하나인 ‘공포’에 집중하였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강박’이 표출되어 작품이 되었다.

## II. ‘결핍’과 ‘강박’에 대하여

피파 바카의 작업은 나에게 한 가지 결핍을 생각하게 하였다. 개인과 사회적 충돌에서 오는 강박증. 피파 바카는 평화를 원했고, 여행을 선택함으로써 치유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과자에게 강간당하고, 살해되었다. 이 작품을 통하여 볼 때, 개인의 욕망(꿈)과 사회적 반응이 일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연구자에게도 존재하며, 그 두려움으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탐구는 영원한 연구 과제이다. 예를 들어, 나치, 광주 학살, 세월호, 코피노<sup>4)</sup>, 조혼 제도<sup>5)</sup> 등등.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인간 본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려운 고민을 시작했다.

미술 작품을 매개체로 인간 안의 본성을 탐구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

---

3) 루스베리, 『30분에 읽는 프로이트』, 중앙M&B, 2003, p.108~121

4) 필리핀 업소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나 버려지는 아이들

5) 8~13세 소녀들이 30~70세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는 제도, 가정 폭력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많이 한다.

은 중요한 과제이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미술 행위를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 간의 분리는 ‘도피’ 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또 하나의 강박과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객관적인 미술적 태도의 강박증이다. 놀랍게도 많은 예술가들이 자살을 선택한다. 예술가만 유독 자살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술가의 자살 과정 속에서 이러한 강박증이 크게 작용했다고 느껴진다. 감동, 치유, 공유라는 도달점을 원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혼란이 찾아올 때 예술가(작가)는 고통을 느낀다. 이 강박증으로부터 휴식을 느끼지 못할 때 스스로 가혹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본인은 예술가(작가) 스스로 이 강박증으로부터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한 이유로 감상자와 공유하는 질문지(경험의 보편성 추구)를 통해 작품과 작가를 분리하는 실험을 지속하였다. 질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보편성은 다음과 같다.<sup>6)</sup>

1. 사회 안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2.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강한 사람의 권력을 극복한다.

그 방향은 되도록 평화로운 방법이다.

3. 공동체는 구성원끼리의 감정적 유대로 유지될 수 있다.
4. 억압받는 구성원들이 필요를 느끼면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되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5. 사랑과 증오의 본능은 서로 필연적이라서 완전히 하나의 감정만 존재하기가 어렵다.
6. 살인이나 근친상간을 금하기 위해서는 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7.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성에 관한 법률과 금기를 정할 때 위험하다. 때로는 가부장적 가정에서 자녀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지도자를 해치기도 한다.
8. 인간은 기아, 홍수, 질병, 자연의 재해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6) 루스베리, 『30분에 읽는 프로이트』, 중앙M&B, 2003, p.138~149

9. 근친상간, 식인, 살인 충동 같은 본능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10. 인간은 신의 존재를 믿지만, 그렇기에 죽음과 같은 운명의 잔인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혹은 문명에 의해 야기된 고통을 신이 보상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기도 한다.
11.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인격 성장에 매우 크게 영향을 끼친다.
12. 수치심의 내면화 과정은 점진적이고, 일상적이다. 수치심이 내재화된 사람에게 양육을 받을 때, 수치심을 학습하며, 양육자와 점차적으로 비슷해져 간다.
13. 어린 시절, 버림받고, 학대받은 충격으로, 감정과 욕구, 동기가 그 시절로 고착되어 있다.
14. 수치심이 드는 기억들이 내면화되어, 악순환으로 드러난다. 스스로 인정하고, 치료를 수용할 때 해결이 가능하다.

이상의 보편성이 질문지에서 제시되었을 때, 감상자들은 스스로 제기되는 의문, 불안에 완벽하게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다. 오히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보편적인 강박과 강박에서 오는 결핍, 그 속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 Ⅲ. 작품으로의 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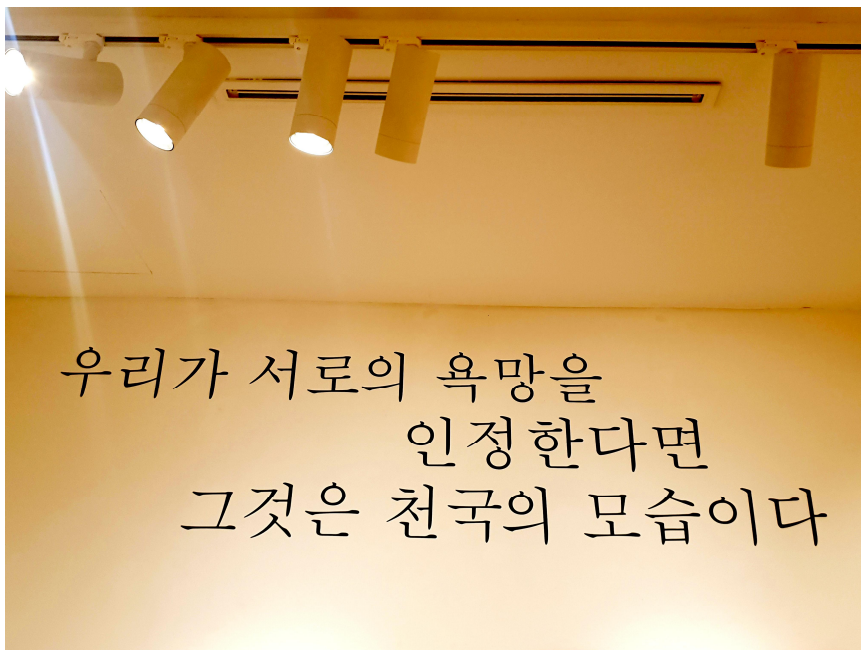
작품 1. <LOVE>, 90.9 x 72.7 (cm), acrylic painting, 2019



이 작품은 연구자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우연하게 집에 널브러져 있던 그림이었지만, 어린 시절을 증명해 주는 시간의 기록물이다. 거슬러 생각해 보니,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스케치북에 혼자 그렸던 그림이었다. 그 이미지를 캔버스에 다시 재현하였다.

I LOVE YOU라는 말을 하트와 함께 그린 그림이었다. 그 때 잣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알파벳이 생소했는지 L을 거꾸로 쓰고도 몰랐다. 지금은 너무 익숙한 I LOVE YOU라는 글자가 그때는

틀리게 적을 만큼 생소하고 어색했다. 그 시절을 떠올리자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지금의 나는 I LOVE YOU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지만, 정말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나에게 반문했다. 그러자, 모순적이게도 엇나간 사랑, 혹은 병적인 사랑을 경험하던 20대의 시간이 회상되었다.



[참고 자료 2] 김연수, 질문지와 나의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는 전시장, 2019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었고, 사랑이 아니었다고 부정할 순 없지만, 분명히 상대도 나도 병적인 형태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다. 집착, 의심, 유대, 원망. 이들은 상당히 보편적인 사랑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

엘리스 밀러는 '누구라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에 자각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고 단정했다. 가족치료센터의 슬로건이 “돌아가지 못하면 다시 되풀이된다.” 인 것은 상당히 상징적이다.<sup>7)</sup>

작품1 LOVE (엇나간 사랑)는 질문지와 함께 캔버스에 러브라고 쓰여진 그림 문자를 바라보며, 스스로의 사랑 관념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분노와 성욕이 억압되어 전혀 다른 안전한 대상에게 투사되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이다. 사회에서 매년 많은 여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다. 때리고 밟는 등 살인에 가까운 폭력이 일어나지만 연인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무조건 용서받고, 없었던 일이 된다. 주변에서도 도와주기 어려운 이유가 그들 간의 엇나간 유대가 형성되어 있어 개입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기 쉬운 여성이 LOVE OBJECT (대상, 물건) 로 전치되는 것은 남성의 심리 때문이다. 자신의 힘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근거로서 상대방을 사용하고, 필요로 한다.

전치 현상은 여성에게도 일어난다. 습관적으로 아동 학대(가두고, 때리고, 던지고, 방치하고)를 하는 여성은 그 사실을 남자와 함께 공유, 은닉하기도 한다. 또는 자신이 매우 아이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있다는 인지 부조화를 한다. 이것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낮은 사회적 지위,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는 남자에게 반복적으로 당하는 감정적, 육체적 폭력으로 그 분노가 아이에게 투사되는 경우이다. 아이에게 물건을 사주고, 때리는 반복 행위는 대표적인 인지 부조화라고 할 수 있다.

최악의 사례로 소아 성애를 느끼는 범죄자들이 있다. 실제로 이들은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성폭행,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병적인 성문화나 음란물로 인해 이러한 욕구가 보편적이라 느끼는 범죄 심리는 전혀 엇나간 망상이다. 소아 성애 또한 분노와 성욕이 안전한 대상인(공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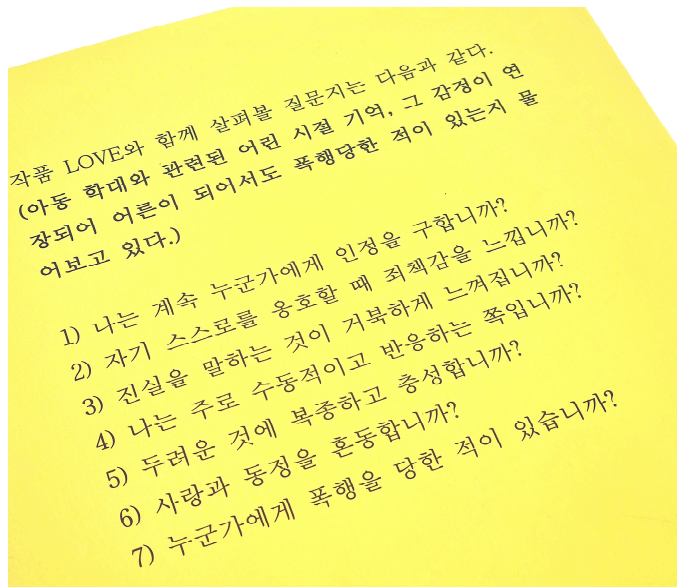
7) 존 브래드 쇼, 『수치심의 치유』,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연구원, 2002, 164~170



력, 방어력이 없는) 아동에게 투사된 경우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좌절된 성욕 또는 반복된 거절감, 성적 무능감 등이 아동에게 전치되어 인간 이하의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한 대상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심리는 ‘사회악’으로 법적 제재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작품1 LOVE를 통하여 사물이나 인간을 처음 대하는 시각을 보여주고자 했다. 어린 시절 경험한 알파벳의 생소함처럼 다시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 연구자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단어에 모호한 공포를 느낀다. 스스로의 인지 부조화, 폭력성은 스스로가 각성할 때 가장 잘 알 수 있다. 사회 속의 한 개인 개인이 ‘사랑’의 진실한 의미를 알고자 할 때 사회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세계가 될 것이다.

연구자는 정신 치료 목적과 유사하게, 감상자가 질문지를 살펴보고 자신 안의 내면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왜? 반드시 그런 태도로 마음을 열어야 할까? 좋은 예술의 경지는 감상자 수준에서 완성될 수 있다. 어느 사이 성인이 되어 버린 내가 어린 나의 희망을 발견해 주었다. 이를 캔버스에 재현함으로써, 작품을 접하게 되는 감상자들이 높은 차원에서 감상을 완성해 주길 기대하였다.



[참고 자료3] 김연수, 질문지가 있는 전시장, 2019

연구자의 또 하나 중요한 화두는 ‘자본주의와 성’에 관한 것이다. 보다 많은 것을 원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안, 결혼의 의미, 자본주의 안에서 파괴되는 소녀들은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문제적 풍경들이다.

최근 발생한 우리나라의 N번방 사건, 조혼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몰염치는 강력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N번방 사건은 소녀들을 성노예(강간, 협박)로 삼는 것을 26만 명에 가까운 인구들이 방관하고 공유하였다. 조혼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낙타 한 마리의 대가로 딸을 넘긴다. 그들의 거래에는 암묵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는 첫날밤 쇼크로 사망하고, 성폭행을 거부하면 황산 테러를 당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 극심하게 분노하게 되지만, 국가 안에서 만든 법이라 다른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돕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5살~13살 정도의 어린 소녀들이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 그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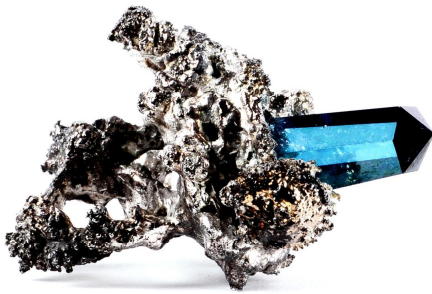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소녀들을 성노예로 팔고 산다.’*

이 사실이 연구자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자본주의와 성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필연적 관계이다.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 동일한 전쟁의 고통을 그리더라도 충격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리는 행위는 하찮은 지각적 오락에 그치고 만다.<sup>8)</sup> 동일한 재난이더라도 동기가 비극의 성찰이나 구원의 염원과 결부될 때 표현은 숭고한 차원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

---

8) 심상용, 『아트테이너- 피에로에 가려진 현대 미술』, 엘로우 헌팅독, 2017, p.117



CORE RING, metal craft, 2011



[참고 자료 4] 김연수, “당신의 페니스를 다루듯  
타인의 가치를 바라보세요.  
싸움이 절대로 안 날 겁니다.”

(적동에 은도금, 아쿠아 오로라 수정, 10x10x10cm)

이 4개의 작업은 ‘자본주의’와 ‘성’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기 위하여 제작해 온 작업들이다.

2011년에 제작했던 위의 오브제는 남자의 자기 중심성을 표현한 것이다.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이기성’에서 비롯된다. 이기성은 자기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 이타성은 타인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본주의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남성의 이기성에서 발병되는 것들이 많은

상황이다. 전쟁이 지속 되면 그 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는 현상도 이러한 연장선이다. 남성의 페니스는 생명을 만드는 원천도 되지만, 수치심을 뽐어내는 심각한 무기도 될 수 있다. 그 이중성을 금속과 보석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살아있는 한, 자신의 음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는 없을 것이다.

그것에 비해 타인의 가치를 그만큼 소중하게 바라보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잔인한 싸움이 남자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하고자 하였다.

금속 재료는 ‘고귀함’의 상징으로 여성들의 보석 장신구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복’의 목적인 남성들의 무기에도 흔하게 사용된다. 그만큼 재료 자체가 역사 속에서 이중성을 가진다. 자본주의 안에서 매우 특수한 성격을 띠는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sup>9)</sup> 브랜드화된 유명한 예술이 정신을 더 살찌우는 것도 아니고, 미술관이 비싸게 매입한 많은 명품 컬렉션은 시민들의 영혼을 맑게 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 CORE RING은 미학이 전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나의 작품이다. 나는 오랜 시간 금속 공예를 전공하며 특히 주얼리 디자인에 의구심이 들었다. 비슷한 디자인,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보편적 아름다움. (티파니, 까르띠에 등의 주얼리 브랜드). 이런 미학이 너무도 당연하게 사랑의 증표(결혼, 약혼)가 되는데, 정작 그것들끼리는 어떤 의심도 없이 가격 경쟁만으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간다. 금속 공예를 전공한 나로서는 원재료의 가격이나 부풀린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폭력적으로 다가왔다. 너무나 신화적으로 고정된 이미지 속에서 금속은 어떤 변모의 호흡도 할 수가 없다. 혹은 그런 재료의 상징성조차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들이 재료의 순환 가능성을 포기할 때 그 재료는 무기가 되고, 창조력을 상실한 질병이 된다. 물론, 경영이 아닌 예술의 관점에서 그렇다.

---

9) 심상용, 『아트테이너- 피에로에 가려진 현대 미술』, 엘로우 헌팅독, 2017, p.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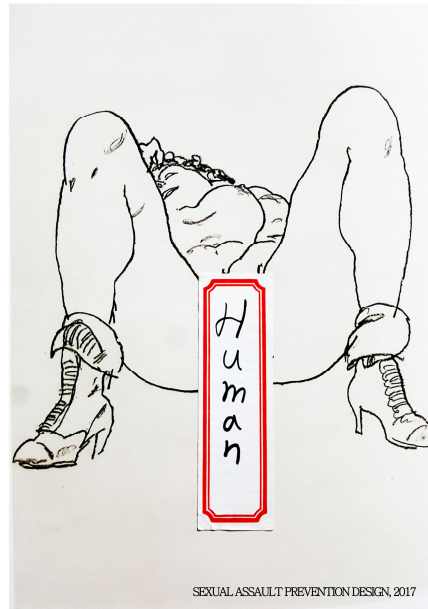
작업에 있어, 걸작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외부세계의 단순 반영이나 감각적 탐닉만으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심오한 자유 정신의 활동이 세상을 향해 표현되는 단계, 우리가 메시지를 부르는 것이 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걸작인가를 묻기 전에 예술이기는 한 건지 먼저 물어야 한다.

[참고 자료 5]

김연수,

“우리 모두는  
인간에게서 나온  
인간입니다.”

(포스터 작업,  
에곤쉴레 드로잉,  
견출지, 2019)



위의 포스터 작업은 에곤쉴레의 드로잉을 이용한 디자인이다.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다. 현재도 너무 많은 갓난아기들이 베이비 박스, 보육원에 무참하게 버려지고 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인식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다. 보육원에 버려져 부모 없이 막막하게 인생을 마주하는 아이들, 이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엇을 바란 걸까? 왜 부모가 될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앞서 거론한 코피노 (필리핀 유흥업소에서 필리핀 여자와 한국 남자 사이에 생겨버린 아기, 그리고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려진다.) 현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 경우는 특히 자본주의와 상관성이 있다. 그곳에선 많은 여성들이 메인 무대에 비키니를 입고 가슴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남성손님들을 기다린다. 남성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레이저로 쏘는 방식 등으로 선택한다. 선택 후에는 옆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다. 성(성매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마담에게 돈을 줘야 한다. 약 10만원~15만원 정도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이 임신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4만 명에 육박하는 버려진 아이들의 숫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이 사건은 연구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돌아보게 하였다.

개인의 일탈 행위는 반드시 개인에게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아노미 현상과 관련 있다.<sup>10)</sup> 성의 상품화 현상이라는 현 우리 사회의 병리적 상황이 성 규범에서 벗어난 성매매라는 일탈적 행위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즉, 아노미는 사회 규범의 와해와 규범이 더 이상 사회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것은 불만, 좌절, 갈등, 그리고 일탈을 일으키게 된다. 자본주의 산업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욕망은 증가되고 이제까지 개개인의 욕망을 규제하던 전통적 규칙들이 권위를 상실하는 순간 아노미가 발생한다. 자본주의 산업 사회는 끊임없는 팽창과 경쟁, 그리고 변동을 급속하게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욕심과 성취욕도 솟구치므로 현대 산업 사회는 만성적 아노미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원시 사회에서도 사냥해 온 먹이 감을 매개로 성매매가 행해졌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성매매의 형태는 사원 성매매(temple prostitution)이다. 사원 성매매는 사원에 맡겨진 하층민 출신의 무희가 참배자에게 몸을 맡김으로써 사원의 재정을 충당했다고 한다.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체계, 이념, 종교가 아무리 달라도 성매매가 존재하지 않은 시대와 나라는 없었다.

---

10) 최수형,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003, p.25, 26, 28, 34



[참고 자료 6] 김연수, NOT FOR SALE, 퍼포먼스, 2019

“나는 성을 팔지 않아요.”

NOT FOR SALE(“나는 성을 팔지 않아요.”) 퍼포먼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된 작업이다. 일부 남성 사회에서는 여성 및 소녀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심리를 퍼포먼스로 표현하였다. 이름이 뭔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마치 물건을 쇼핑하듯 여성을 취급한다. 쇼핑백 속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공부를 할 때 입는 교복이 언제부터 포르노와 유흥업소의 컨셉이 되었는지 그 경로가 의문이 생긴다. 영화의 한 작업인 ‘포르노’가 생성하는 괴리감이 실제로 현실 생활에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수치심이 작품으로 표출되었다.

진정한 인생의 길은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sup>11)</sup>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위대성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예술



의 의미는 마땅히 그 ‘잃어버린 위대성’을 찾으려 하는 것에 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혼잡한 일상을 사는 현대인에게 그 갈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참고 자료 7]

김연수, 처녀의 시간

“집을 못 사면 결혼도 꿈 꿀 수 없는 시대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사진, 2014)

‘처녀의 시간’ 퍼포먼스는 결혼, 가정, 집에 대한 질문이다. 휴식을 위한 집이 언제부터인지 부동산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집이 재산을 늘리는 수단이 되어, 본래 집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

11) 심상용, 『아트테이너- 피에로에 가려진 현대 미술』, 엘로우 헌팅독, 2017, p.183



집이라는 명사가 가져다주는 가장 소중한 아끼는 사람과 휴식하는 공간. 그 의미를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젊은이들은 도시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이 부족하다. 반대로 도시에 반드시 거주해야 할 필요가 없는 노년층들은 치솟는 집값으로 자연으로 떠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의미를 전복시킨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안전할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욕구가 집을 통하여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류는 어디서부터 기원되었는가? 기독교 경제 학자로 알려진 칼 폴라니는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이 경제적 존재가 아닌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에서 찾는다.<sup>12)</sup> 인간은 물질적 소유를 욕망하는 상황에서조차 사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요인, 곧 사회적 선의, 지위, 자산 등을 보다 중시하도록 디자인된 존재라는 것이다. 이 존재성에 부합하는 질서는 경제적 이익이 사회적 인정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인정이 경제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과 관계가 전복되면서 현대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친 경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현실 세계는 부루마블 놀이처럼 무한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끊임없이 부수고, 새로 지어대면서 동일한 행위의 회전력만 높아진 것이 서울의 도시 미학 1단계였다. 표정이 사라져버린 도시에 럭셔리 명품 예술을 촘촘하게 이식하면서 도시 전체를 명품관으로 만든 것이 2단계다. 그 발상 안에 기억 상실증과 소비주의로 내모는 코드가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적 치유가 숙제이다. 상처, 트라우마가 더 불안한 사람일수록 더욱 화려한 옷을 입기도 한다.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닐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건물의 철거 과정을 보았다. 철거되는 과정을 보니 집의 의미가 보였다. 무엇을 위해 함께 사는 걸까? 가족이라는 구성체는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정말로 알고 있나? 사회 구

12) 심상용, 『아트테이너- 피에로에 가려진 현대 미술』, 엘로우 헌팅독, 2017, p.181,185,186

성체 중 가장 가깝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졌다.

최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속에서 핵가족화 되고 있다. 또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집이 재산으로 인식되고, 자녀들은 사회 경쟁에서 성공해야 하는 강제적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그 의무는 정신적, 육체적 자립과는 다르다. 자녀들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모든 것이 자본으로 평가되는 공간 속에서 시간의 의미는 추억이 아닌 성취의 기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을 할 때 입는 의복이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처녀의 시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자명종이기도 하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퍼포먼스를 해야만 한다. 당연하게 느끼던 것들(집의 형태, 남편, 자녀 등)이 오히려 선명한 의미로 다가왔다.

자본주의와 성은 본인의 모든 작업에 배경으로 작용한다. 그 이유는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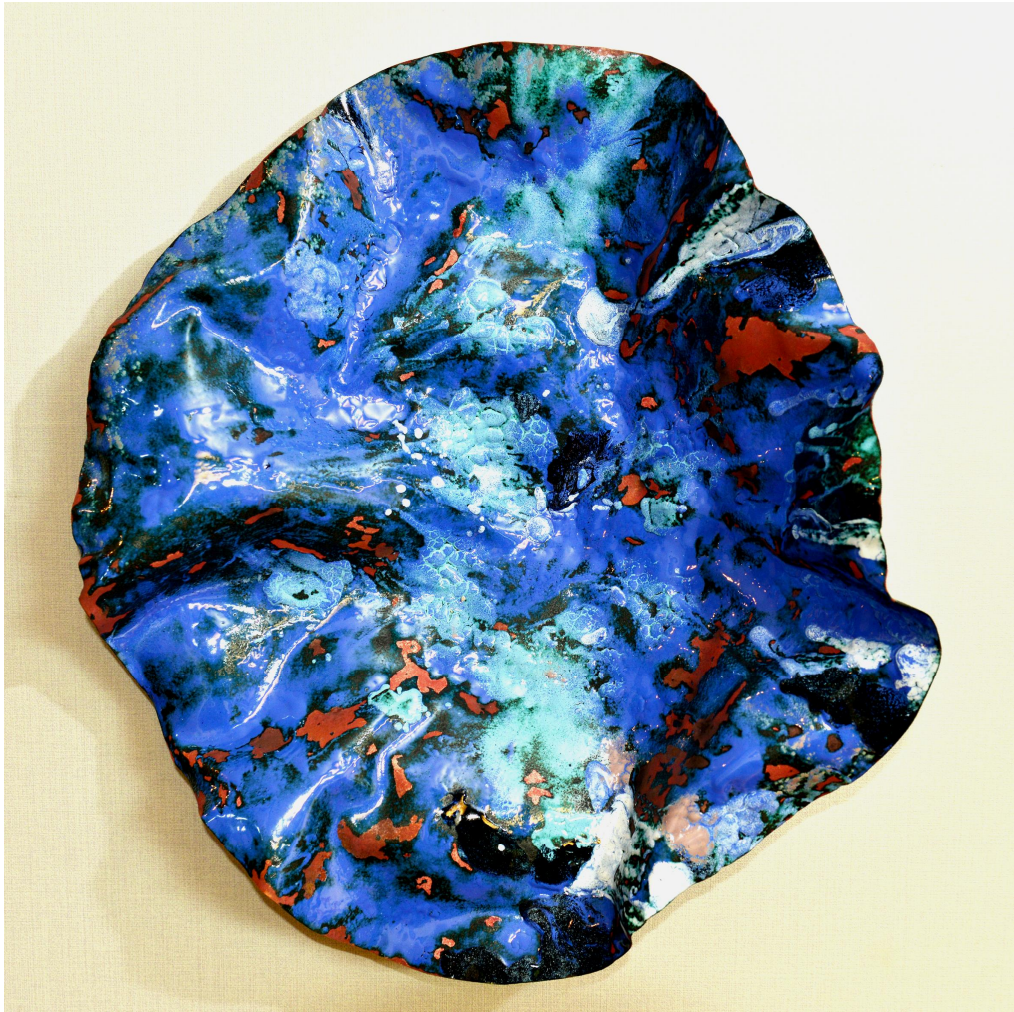
- 작품 1 <LOVE>와 함께 살펴볼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아동 학대와 관련된 어린 시절 기억, 그 감정이 연장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폭행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 ① 나는 계속 누군가에게 인정을 구합니까?
- ② 자기 스스로를 옹호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까?
- ③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북하게 느껴집니까?
- ④ 나는 주로 수동적이고 반응하는 쪽입니까?
- ⑤ 두려운 것에 복종하고 충성합니까?
- ⑥ 사랑과 동정을 혼동합니까?
- ⑦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작품 2. <감각의 붕오리>

60 x 70 x 15 (cm), 적동에 칠보, 2016



감각의 붕오리는 연구자에게 큰 도전인 작업이었다. 에로스를 표현한 미술작품은 꽤 많다. 클림트의 키스부터 에곤실레의 드로잉들. 이밖에도 에로스 에 대한 표현은 다양하다. 루브르 박물관에도 수많은 신화적 작품들이 걸려 있다. 그럼에도 항상 느끼는 것은 에로스(사랑)에 관한 작품일 수록 ‘정도의 조절’이 어렵다고 느껴졌다. 고상한 것만이 에로스는 아

니다. 그러나 포르노는 미술의 영역이나 예술의 경지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 인간 안의 악감정을 부추기고, 범죄자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는 면이 많다. 나는 아주 큰 불편함을 느낀다.

미술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에 대한 탐구가 치열하다.

예술품에는 예술가의 인생, 경험과 기억, 세계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이 담긴다.<sup>13)</sup> 마치 모유처럼 삶의 정수가 예술가의 영혼과 가슴에서 흘러나와 예술품이라는 특별한 그릇에 담기는 것이다. 예술가가 예술품을 만드는 과정은 모유 수유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로 인해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예술가의 정신이 작품의 내용을 살찌우고 형식을 만든다. 내가 감각의 봉오리(BUD OF SENSE)를 만든 과정은 사랑 그 자체를 믿는 과정이었다. 비논리적이지만 사랑 그 자체를 만들면 사랑을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인간은 한계가 많고, 늘 가변적이라 사랑 그 자체이기 어려운 존재라고 느껴진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인간의 형상을 그린다. 어른이 되어 미술학도가 되면 누드를 그린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내면에 대한 탐구로 느껴진다. 인간 그 자체를 진실하게 바라보는 것. 있는 그대로 응시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는 에로스의 시작으로 느껴졌다. 상대방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존재를 응시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만큼, 나에게 소중한고 크게 다가오는 감정.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에로스)이다.

그 안에는 질투, 불안, 행복, 슬픔, 기쁨 등 희노애락이 모두 들어있다. 이런 감정을 인간의 형상만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다. 사랑하는 사람과 느꼈던 그 실체를 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비밀스럽고, 서로를 보호하고, 천국에 있는 듯한 자아의 뒤섞임. 선명하고 역동적이면서 흐르는 색채가 중요하였다. 그리고 형태는 힘과 적극적으로 교감하지만, 주체적으로 리듬 있게 반응하는 물질이 적합하게 여겨졌다. 자연스럽게, 선명한 움직임. 그러나 조심스러운 긴장감을 버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연구자와 물질 사이에)

---

13) 심상용, 『아트테이너- 피에로에 가려진 현대 미술』, 옐로우 헌팅독, 2017, p.98

[참고 자료 8]

김연수,  
전시장에 설치된  
감각의 봉오리  
(BUD OF SENSE)  
시리즈

사랑에 관한  
나의 생각과  
질문들이  
공유되었다. 2019



metal sculpture, 2016, 43x60x15cm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느낌이다. 오랜 시간 다루었지만 불편한 물질이 바로 금속이었다. 금속은 너무나 무겁고, 딱딱하다. 가공(조형)에 많은 시간, 노력,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또 강렬한 색감을 내기에 가로막는 조건이 많다. 어려운 추상성에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사랑 앞에 두려운 감정과 똑같았다. 금속이 불에 달구어져, 칠보가 천천히 녹아들어 색깔이 서서히 선명해지는 방법이다. 이 모든 과정이 실제적인 사랑과 매우 흡사하게 느껴졌다. 자아 통제를 넘어서는 과정이기에 최종 완성의 모습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진실한 성의 교감과 힘(폭력이 아닌 생명력)의 꿈틀거림은 두렵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속성인 것이다.

- 작품 <BUD OF SENSE>와 함께 살펴볼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에로스에 관한 느낌, 부모와 관련된 이마고(IMAGO)<sup>14</sup>, 사랑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느낌들을 물어보고 있다.)**

- ① 사랑하는 사람과 자아가 뒤섞이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 ②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공감한 적이 있습니까?
- ③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다르게 느껴집니까?
- ④ 에로스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까?
- ⑤ 양육 과정 중 성에 대한 죄책감을 교육 받았습니까?
- ⑥ 나의 부모님은 엄격한 사람들입니까?
- ⑦ 부모로 인한 상처가 내가 느끼는 에로스를 방해합니까?
- ⑧ 부모의 상처가 나의 상처로 느껴집니까?
- ⑨ 쾌락과 상처는 상관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경계선’은 연구자의 연구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해진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형용사는 양면적인 감정을 포함한다. ‘귀엽다’는 소중하기도 하지만, 약간 지배하고 싶은 본능이 들어있다. ‘시선이 간다’는 매혹적인 동시에 불편하다는 뜻이다. ‘편안하다’는 행복한 동시에, 아무런 자극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에도 이기성과 이타성이 공존한다.

연구자는 미술의 영역에도 이런 양면성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한다고 믿는 미술은 오만한 계몽이 될 수 있다. 혹은 감정 자체를 차단하는 실험 과정으로 변모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자의 조각 작품(두 다리)를 구매했던 사람이 제작자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감상한 경우가 있었다. 제작자는 슬픈 감정과 아련한 그

---

14) 어린 시절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낀 감정, 기억들. '아직 끝내지 않은 작업' (미해결과제 -unfinished business)라고도 한다. 이 감정이 부부 관계에서 계속 연장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적절한 치유와 사과, 용서를 통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자의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 IMAGO다. 부부 대화법(Couples Dialogue)훈련을 통해 치료하기도 한다. 서로의 어린 시절 상처를 이해하고, 부부가 서로의 치료를 돕는 치료사가 된다. 가장 가깝고 믿음이 가는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치료한다.



리움을 표현하였다. 다리 형상의 조각이었다. 기다림의 느낌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9] 김연수, 두 다리, 60 x 40 x 60 (cm), 적동, 2012

그러나 구매자는 보자마자 경쾌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 때문에 소장하고 싶었다고. 이 경험은 연구자에게 있어 미술의 매개체가 제작자와 감상자에게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반드시 1인칭으로 자신을 대변하는 물질의 탄생이 아니라, 자신도 몰랐던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미술 행위는 인간의 의지로 전부 통제되지 않으며,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인간의 추함과도 연결되고, 카타르시스를 대변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와 감상자 사이에는 다양한 갈래의 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 어딘가에 미술이라는 단어가 위치한다. 미술의 정의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미술을 할 수 있다. 정확한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거나 혹은 철학이 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어떤 범주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이론이라면 작가가 다루는 통제 불가능의 선택과 색은 실험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미술에서 확실한 것만 추구한다면, 행위과정에 흥미를 가질 이유조차 없다. 더 이상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것은 미술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술이 인간 감정의 치유와 아주 가깝다. 동시에 행위과정에서 작가 자신의 수치심을 들여다보게 되고, 어떤 때는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수치심’이라는 정신 영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삶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상 그 수치심의 형태가 매우 보편적이라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현대 사회는 상당히 수치심에 중독되어 있다.<sup>15)</sup> 6,000만 정도 되는 성적 학대의 피해자, 7,500만 정도 되는 알코올 중독자와 약물 중독자, 거액의 세금이 불법 약물 거래에 낭비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정도이다. 1,500만 이상의 가정이 가정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음식 조절 장애를 경험한다. 섹스 중독과 일 중독의 통계 자료는

---

15) 존 브래드 쇼, 『수치심의 치유』,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연구원, 2002, p.119~149



어렵지만 도박 중독은 1,300만 정도 수치가 나온다.

수치심은 인간이 조용히 자신의 우리 안을 살피고 평화를 느끼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준다. 또한 성공이라는 개념은 나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에 자살 동기가 된다.

‘수치심’은 정신 의학적으로 뱃속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매우 미묘하고 위험한 감정이다. 특히 나로부터 비롯되기보다는 부모, 타인과 같은 주변의 요소로 형성되는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출될 경우, 반강제적으로 깊게 각인되어, 수치심이 나 자신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태어났고, 그 원천은 어머니의 자궁 속이다. 즉, 어머니가 느낀 모든 감정을 뱃속에서 전부 교감했다. 그만큼 누군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 이는 ‘성(性)’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작품 3. <모든 것은 자궁 속에서 결정된다.>

30 x 40 x 20 (cm), 석고 캐스팅, 플라스틱 구, 자석, 철가루, 2014



연구자는 이 작품을 석고로 제작하였다. 하얗고, 깨질 수 있는, 여체의 파괴 가능성을 석고로 상징하였다. 여성의 몸은 매우 슬직하고 정직하게 반응한다. 자발적으로 혹은 타인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파괴력을 가질 수

도 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몸에서 반응하는 직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성 몸의 주체는 결국 자신이다. 선택의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작품의 자궁은 투명한 플라스틱 플라스크로 표현했다. 속이 비치고, 그 안에 철가루와 자석을 사용하여 체모를 형상화하였다.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체모 형상이 바깥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자궁이라는 비가시적 공간에 오히려 숨어있다. 이 반전을 통해, 연구자는 여성 몸의 숭고함을 상기시키고 싶었다. 여성은 남성의 성적 쾌락 도구가 아니며, 잉태의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애석하게도, 여체와 자궁을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 결과로,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학대받는다. 남성은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질 수 없는 임신 앞에 분노하는 것은 사실상 다가올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러하듯 여성은 여자라는 사실만으로 큰 상처를 받기 쉽다. 오히려 자궁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여성도 많다. 비가시적인 자궁의 역할은 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의 보호막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시간 속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다. 인간이 어떤 어머니에게서 키워졌는가는 그만큼 지배적이다. 삶에 대한 가치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작품 ‘모든 것은 자궁 속에서 결정된다’는 내재적 수치심을 표현하고자 제작한 것이다. 인간이 평생 느끼는 불안의 감정은 얼마나 선천적이고, 얼마나 후천적일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배운다.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부모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지라도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수치스러운 기억이 자신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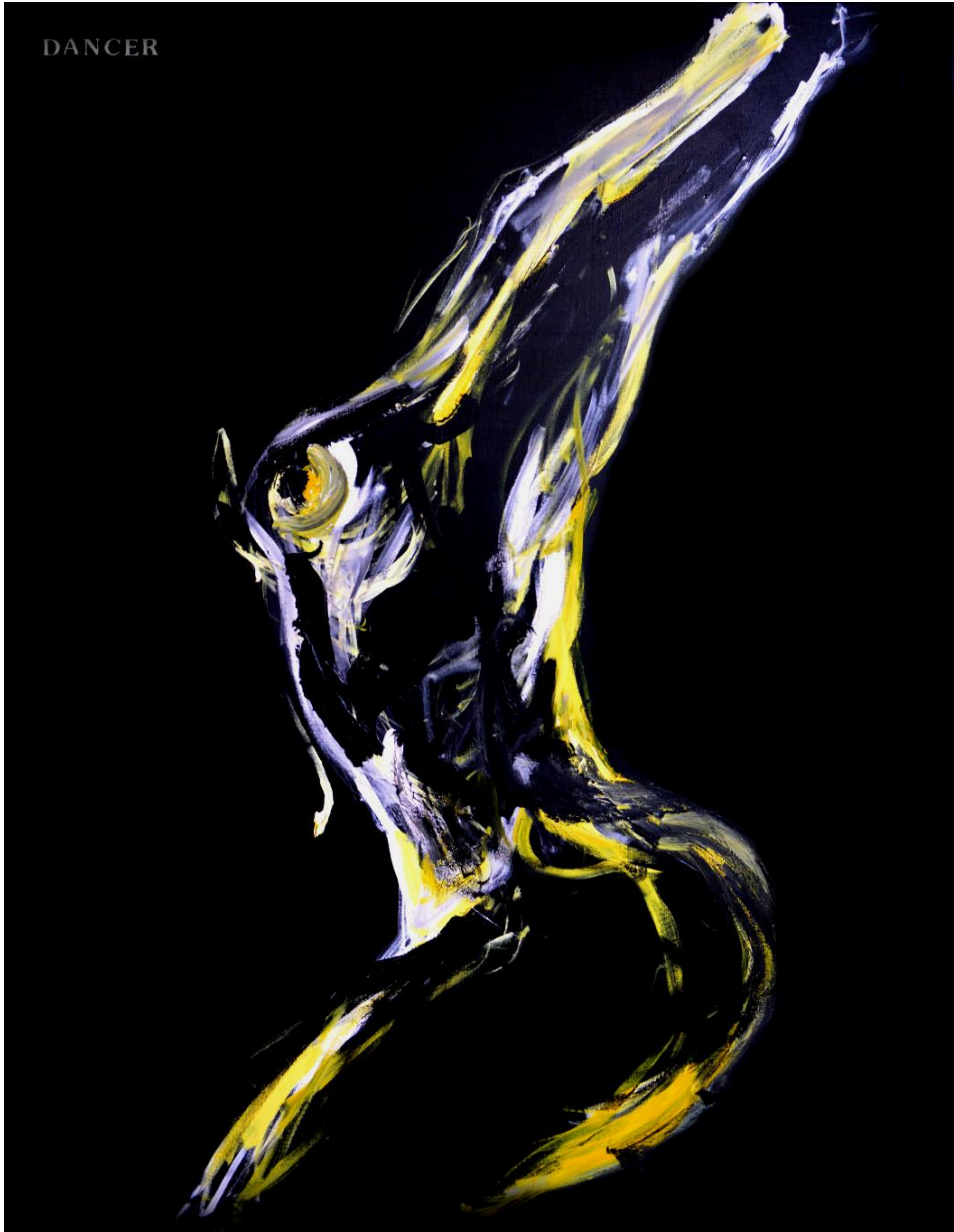
- 작품 ‘모든 것은 자궁 속에서 결정된다’와 함께 볼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결핍과 상처를 물어보고 있다.)

- ① 모든 신생아는 충분히 환영을 받아야 합니까?
- ② 유아기에 부모의 요구에 ‘아니’ 라는 거절을 해도 괜찮습니까?
- ③ 어린 시절 성적인 호기심을 존중받고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까?
- ④ 어린 시절에 모든 궁금한 것들을 엄마 혹은 아빠에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까?
- ⑤ 성장 과정 중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예, 연민, 사랑, 경멸, 무시, 부존재 등의 시선)
- ⑥ 당신의 임신을 축하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 ⑦ 당신이 임신을 했을 때 어떤 이유로든 임신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춤은 인간에게 중요한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현대무용, 발레, 홀라춤, 탈춤, 그 형태도 다양각색이다. 그 춤 속에 인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인간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내면의 몸짓이 들어있다. 뇌와 심장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 진실한 감정이 담긴다. 언어가 없이도, 인간은 춤동작만으로 사람의 감정, 상황,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만큼 춤은 아주 강력한 인간의 표현 수단이다. 춤 속에는 여러 자유가 허용된다. 슬픔을 표현하는 자유, 분노를 표현하는 자유, 기쁨을 표현하는 자유, 그만큼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감정과 아주 밀접하다. 두려움, 외로움, 사랑, 고통은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예술 행위를 통해 감정을 객관화할 필요성에 반응한다. 이는 보여주기 이전에 스스로를 위한 행위의 일부이다. 나에게 댄서의 동작을 그리는 행위는 감정을 객관화하는 하나의 감정 표출이다.

작품 4. <댄서>

116.8x91cm, acrylic painting, 2018



타인의 몸짓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재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포함하게 된다. 선을 통해 댄서의 감정선을 그대로 따라간다. 드로잉 과정에서 연구자가 느끼는 자유, 슬픔, 분노, 고통, 기쁨을 발견한다. 이 과정은 한 명, 한 명의 댄서를 창조해 내는 일과 같다.

나의 작품 4 <DANCER>는 자신의 육체만으로 자유롭게 춤을 추는 여성을 그린 것이다. 대부분 모든 순간 외부로부터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여성, 여성이라는 존재는 늘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처럼 작품 <DANCER>와 작품 <모든 것은 자궁 속에서 결정된다>, 두 작품은 여성이 몸으로 느끼는 감각을 극대화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세상에 나오는 것은 임신과 산후 우울증을 동반한다. 누군가를 육체 속에 품는 것은 과연 수치심 없이 해낼 수 있는 일인가? 엄청난 고통과 기다림 끝에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건 여성의 육체와 정신에 많은 영향을 준다.

야생 동물에게도 수치심이 있을까? 대부분의 야생 동물은 죽음이 두려워서 짓는 무표정이나 공격 이외에는 스스로 수치심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배에서 나왔건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적인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온 이상 어떤 동물이든 스스로를 보호하며 소멸할 때까지 숨을 다해야 한다.

- 작품 'DANCER' 와 함께 붙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억압을 받은 기억,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물어보고 있다.)**

- ① 정신적 자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②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육체적 행동을 자유로 볼 수 있습니까?
- ③ 어떠한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④ 결핍과 자유는 반대입니까?
- ⑤ 누군가의 억압을 그 사람의 자유로 볼 수 있습니까?
- ⑥ 자유는 타인을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참고 자료 10]

김연수, 댄서 연작이 설치된 전시장 풍경,  
나의 이야기, 질문지와 함께 공유되고 있다. 2019

“본론으로  
들어주세요.”

25살에게도, 6살에게도  
너무 어려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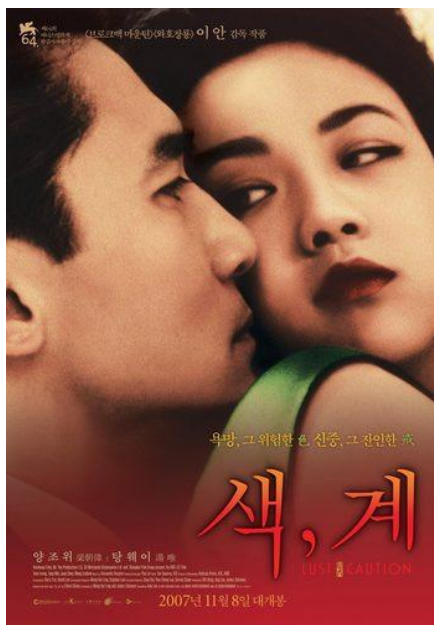






작품 5. <색, 계>

90.9x72.7cm, acrylic painting, 2018



작품 5 <색, 계>는 이안 감독의 <색, 계><sup>16)</sup> 포스터를 나의 방식으로 재구성해 그린 것이다. 이는 영화의 내용이 중요해서이기도 하다. 영화 색계는 전쟁, 이념의 갈등 속에서 인간들이 느끼는 불안과 억압된 분노, 무기력한 외로움을 보여준다. 남, 여 주인공은 서로에게 표적과 도구가 되어 불안과 광적인 분노, 슬픔을 나누지만, 그 과정이 무색할 만큼 허무하게 남자는 여자를 죽인다. 조금이나마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기대, 후회스러운 눈물과는 달리 남자의 잔인함은 단호한 결정으로 이어진다.

연구자는 이 영화에서 감독의 의도를 충분히 읽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안 감독의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된 부분이다. 그는 실제로 색계를 찍고 몸이 많이 아팠다. 힘겨운 작업인 만큼 정신적으로 앓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감독인 그는 남, 여가 서로를 죽이는 관계,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진정한 에로스는 죽음의 본능, 불안이 아닌 생의 열정이다. 서로가 도구가 되는 억압된 분노와는 전혀 다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매춘부라는 사실은 인간 안에 잔인성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다. 나의 작품 색계는 인간 사이에 불가피한 경계심을 표현한 작품이다. 경계심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살아가기 위한 건강한 경계선이다.

---

16) - 영화 <색계>는 중국 작가 장애령이 1979년에 발표한 동명의 중편 소설이 원작이다. 영화는 공산당의 고위급 비밀 요원이자 신병 모집책을 암살하려는 계획하는 대학생 무리를 그린다. 그들은 그를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해 매력적인 젊은 여성을 활용한다. 영화는 열정적이기도 하고 사도마조히즘적이기도 한 노골적인 섹스 신들을 담고 있다. 이안은 그 신들이 자체적으로 내러티브를 창조해 내는 방식을 설명한다. 감독이 의도한 극적인 바다랭귀지는 관객에게 무언가를 말한다.

“왕(탕웨이)이 연기한 여주인공)은 사랑에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섹스(양조위가 연기한 남주인공)이 그녀를 포용하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태아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활력을 취어 짜내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슴이 몽글해 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배우와 감독은 캐릭터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감독 이안은 <색계>가 극도로 개인적인 영화라고 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 내면의 감정과 심경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갖고 캐릭터를 연출했다.”. 영화 <색계>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다.

- 카를라 레이 풀러, 『이안, 경계를 넘는 스토리 텔러』, 윤철희 옮김, 2019, p.29

열정과 냉정(이성)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이성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자칫 자유로 느껴지지만, 오히려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마약, 약물 중독,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는 더 큰 폭력이나 살인, 자살로 이어진다. 중국에는 이성 없이 나 자신을 열정에 던져버리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이다. 그 후에 비참한 절망감이 따라오고, 결국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에 지배되는 존재이다. 이성을 포기하면 육체가 자유로울 것 같으나,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성이란 결국 자신이 스스로 보호받기 위해 판단하는 모든 과정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타인도 스스로를 통하여 보호받게 된다. 자신의 보호를 위해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경계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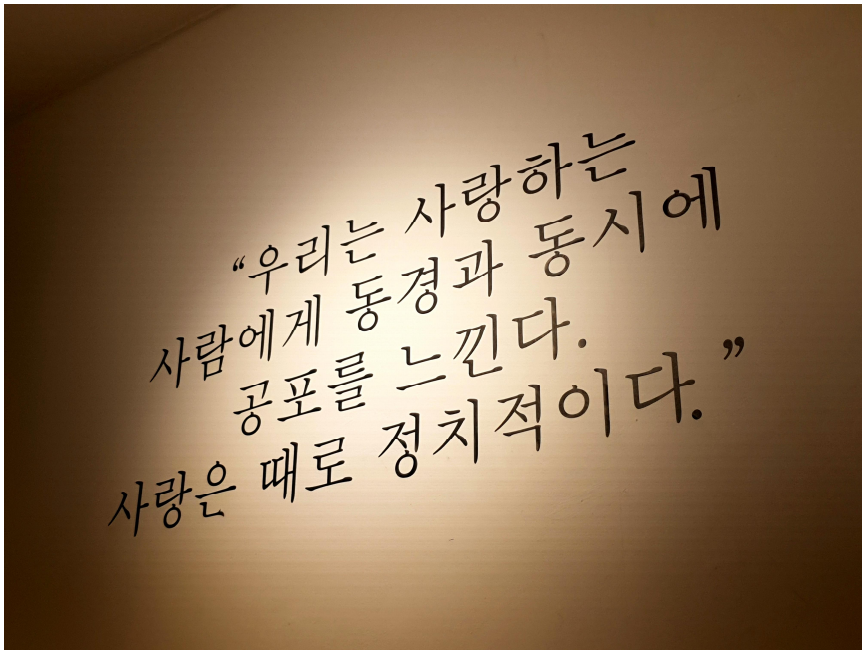
## 〈KISS〉의 연작 활동

본인은 〈KISS〉라는 주제로 ‘관계’에 대한 연작을 오랜 기간 진행해 왔다.

나에게 있어서 〈KISS〉라는 개념이 미시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거시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KISS〉를 하는 두 사람이 반드시 사랑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한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은 때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KISS〉 행위를 그림으로써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표정이나 단서로 감상자는 두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KISS〉를 하고 있는 모습을 물감으로 그리는 행위는 나에게 운명을 창조하는 과정과 같다. 작가가 그려내는 표정과 감정대로 두 사람의 운명이 예고된다. 이 과정은 작가의 사랑(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작가가 누군가와 느끼는 감정은 분명 인류 보편적인 감정이었을 것이고, 그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감정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작가는 스스로 볼 수 없는 내면을 〈KISS〉에 투영하여 자신의 감정을 확인해 보기를 기대하였다. 감상자도 〈KISS〉를 보면서, 작가와 같은 과정으로 스스로가 치유되길 기대하였다.

실제로 <KISS>를 전시한 전시장에서는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감상자 스스로의 감정을 투사하여 그림을 감상하였다. 그들은 그 감정을 말해주었고, 그들이 읽어낸 이별의 감정, 아쉬움, 그리움, 설렘은 작가의 의도가 아닌 그들의 현재 감정에 가까웠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흥미로운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몸과 감정과 관련된 현상들을 내 손을 통해 그려내는 이유가 있다. 신체 노동과 결부되는 것을 자의적으로 거부한 예술이 개념 미술이다.<sup>17)</sup> 깨달음과 창조의 기관들이 점점 더 우리의 신체 기관을 떠나갔다. 손에 부여된 재능을 부차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예술은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손에 의해 성취된다. 창조에 있어서 손은 단지 도구가 아니다. 대체 불가능한 창조의 기관이다. 그 창조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사유의 시간이다.



[참고 자료 11] 김연수, 키스 연작이 설치된 전시장 풍경,  
나의 이야기, 질문지가 함께 공유되고 있다. 2019

17) 심상용, 『아트테이너- 피에로에 가려진 현대 미술』, 옐로우 헌팅독, 2017, p.57, 58





- 작품 <색계>와 함께 볼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사랑에 대해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 ① 당신은 가족에게 어떤 존재라고 느껴집니까?
- ② 한 사람과 유대감을 느끼는 것에 결핍감을 느끼니까?
- ③ 사랑하는 사이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 ④ 당신은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경계심을 표현합니까?
- 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의 감정입니까?
- ⑥ 사랑하는 대상에게 두려움과 경계심을 느껴야 합니까?
- ⑦ 사랑하는 관계 속에도 힘의 논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상당히 오래 존재해 온 산물은 ‘돌(Stone)’이다. 이는 자연물이고, 순환의 과정을 통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다. 마그마가 땅속에서 끓고 식어, 굳어서 돌이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퇴적물이 압축되고 쌓여서 돌이 된다.

또다시 돌은 바람, 햇빛, 물, 동물 등에 의해 침식이 되고, 풍화 작용으로 부서지고 마모가 된다. 이렇게 풍화 작용으로 변하는 돌은 모양만 바뀔 뿐 계속해서 같은 물질로서 존재한다. 그만큼 돌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다. 예상되는 감각이 정해져 있다. 무겁고 단단하고 위험하다.

보편적인 감각에 반전을 일으키고자 하여 제작하게 되었다.

돌을 통하여 나에게 익숙한 풍경이 생소해지는 경험을 유도하고 싶었다. 그 두려움을 통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느끼게 하고 싶었다. 판단, 명령만큼이나 느낌은 중요한 학습 요소라고 생각한다.

## 작품 6. <TOUCH 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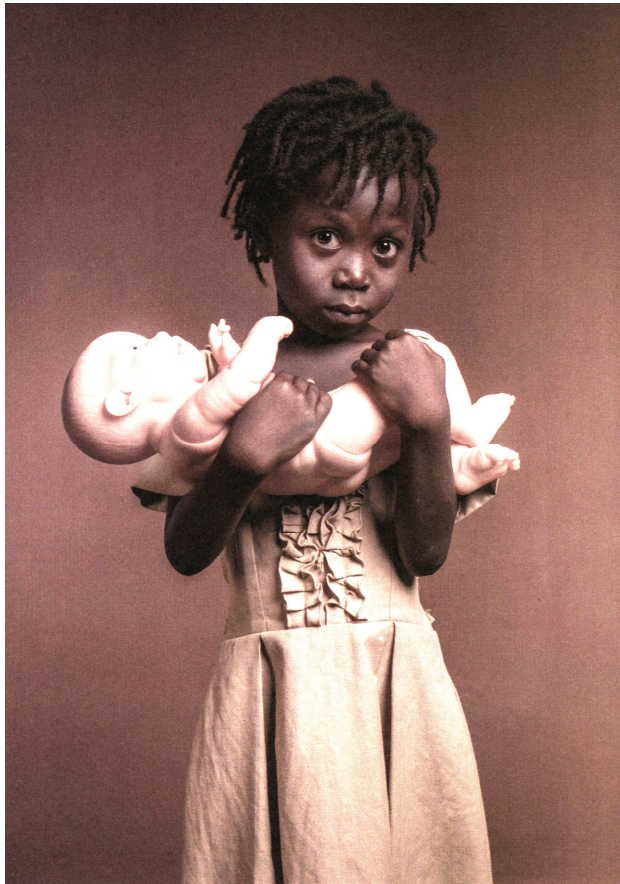
12x8x9cm, 스펀지에 아크릴 채색, 2014



작품 <TOUCHSTONE>은 작가 내면의 고정 관념(편견)을 불러내어 깨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편견’에 관한 실험 하나를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실험은 매우 인상적인 실험으로 나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소수의 국가들은 크고 작은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노예나 식민지와 같은 경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권력으로 지배하려는 자들이 생기고,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은 이에 굴복하며 살아왔다.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한 민족의 습관으로 남는다.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국가는 잠재적으로 가난을 두려워하게 된다. 노예나 식민지의 시기가 길었던 민족은 내면적으로 폭력을 두려워할 것이다.





[참고 자료 12] 파브리스 몬테이로, 벽에  
걸린 마법의 거울  
(Magic mirror on the wall), 100 x 71.4cm,  
2020

위의 <벽에 걸린 마법의 거울(Magic mirror on the wall)>은 파브리스 몬테이로의 사진 작업이다. 1940년대 심리학자이며 교육활동가인 ‘케네스 마미클라크’는 인종 차별이 자아 인식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3세~7세 사이의 흑인 아이들이 흰 피부색과 검은 피부색을 지닌 인형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실험하였다. ‘착하고, 예쁜 인형’을 물었을 때 아이들은 압도적으로 ‘흰색 피부를 가진 인형’을



선택하였다. 파브리스 몬테이로는 이 실험을 최근(2020) 다시 재현하고 그 결과를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실험은 여섯 살부터 여덟 살까지의 어린이 10명에게 검은 피부색과 밝은 피부색 중 함께 사진 찍고 싶은 인형을 고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유를 물었다. 참여한 아이들 대부분이 밝은 피부색의 인형을 선택하였다. 아이들이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도어실 (7살): “하얀 인형의 입과 코가 더 작으니까요.”

미라벨 (6살): “하얀 인형은 깨끗하니까요.”

마리아 (8살): “아직 흑인들이 발명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미디아스 (7살): “다른 인형은 피부색이 어두운데, 그건 좋지 않아요.

제르망 (7살): “하얀 인형이 백인을 의미하니까요.”

많은 교육적 시도들이 취해졌음에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피부색에 대한 폭력적 편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과 왜곡을 걸러낼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집단적으로 세뇌되는 중이다.

연구자는 왜 어떤 것이 당연해지는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외부에서 경험으로 흡수된 고정 관념이 자신 안의 동심이나 상상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대수롭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본래의 것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 고정 관념이 서서히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되면 다른 것을 상상하기 어렵게 된다.

나는 이 상황을 위협하게 여기게 되었다. 어른들은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예술 교육, 표현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천사, 요정, 외계인, 산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아이들은 궁금해 하고, 믿기도 한다. 그것이 상상의 힘이고, 또 하나의 가능성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도 어른의 흉내를 내며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믿어 왔다. 믿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성취의 척도로 삼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점점 동심이 배척된 ‘강박’을 스스로 키워 왔다고 할 수 있다. 프레모레비는 말했다. “유용한 것만 연구되는 세상은 운명이 우리에게 배정한 세상보다 더 슬프고, 더 빈곤하고, 어쩌면 더 폭력적이기까지 할 것이다.<sup>18)</sup> 어느 한 사람만이 작가에게 심어준 강박은 아니지만, 서서히 어른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고정 관념이 내면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것이 연구자에게 고통으로 다가왔고, 또다시 강박, 완벽주의를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서 스펀지를 돌처럼 조각하고 채색하는 것은 치료를 위한 하나의 수행이었다. 본래의 고정 관념으로는 이 어려운 과정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최선을 다하여 ‘마법’ 같은 행위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물을 감상자들이 함께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나는 그 감상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

18) 심상용, 『아트테이너- 피에로에 가려진 현대 미술』, 옐로우 헌팅독, 2017, p.43



[참고 자료 13] 김연수,  
어른들은 머뭇거리지만, 아이들은  
**‘만져보세요. 가지고 노세요’** 라는 문구에 바로 반응하고 있다.  
(전시 풍경) 2014

연구자의 작품 <TOUCH STONE>은 돌처럼 채색했지만, 사실은 가벼운 스펀지를 조각한 것이다. 실제로 만져봤을 때 느껴지는 당혹감과 의외성을 통해, 예상이 늘 일치하지는 않았던 순간을 떠올리도록 유도했다. 머릿속으로 예상하는 것과 실제의 경험은 그만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항상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시 과정에서 감상자들은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어른들은 본인들이 생각한 돌이 아니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무서워하거나, 만지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만져보고, 가지고 놀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고정 관념 때문일 것이다. 세월에 의해 축적된 경험이 반대로 고정 관념을 만든다.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프레임도 배경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가치 있다, 소중하다는 인식도 맥락 속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손은 접촉의 최전선이자 중요한 인식 기관이다.<sup>19)</sup> 손의 형이상학적 가치를 발자크는 일찍이 꿰뚫어 보았다.

“손은 삶을 스멀스멀 기어 나오게 해. 그리곤 마술적인 에너지의 흔적을 남기지. 결국, 손은 우리가 생각의 육화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어떤 설명 불가능한 현상을 야기시키는 거야.” 만지기로서의 보기가 세계의 특권적인 경험으로 이끈다. 사물의 촉각적 인식이 시각의 결핍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19) 심상용, 『아트테이너- 피에로에 가려진 현대 미술』, 옐로우 헌팅독, 2017, p.60

작품 <TOUCHSTONE>은 겉모습만 돌과 유사할 뿐 실제 촉감이나 무게는 10배 정도 가볍다. 너무 가벼워서 이상할 정도다. 특정 스펀지 재질을 사용하여 평상시에는 딱딱하고 가볍게 굳고, 물에 적시면 뚱뚱 떠 있다가 축축해지면서 가라앉는다. 예상 밖의 특성을 감상하며 작품의 의도를 은근히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고정적인 것은 없으며 우리는 변화에 늘 적응하고 느낀다. 고정 관념은 시시때때로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만들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공유할 때 고정 관념을 서서히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



- 작품 TOUCHSTONE과 함께 붙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자신 안의 고정 관념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 ① 심각하게 정체성의 문제를 느낍니까?
- ② 여자로서의 역할에 분노를 느낍니까?

- ③ 남성의 역할에 슬픔을 느낍니까?
- ④ 수시로 변화하는 감정을 구분하기 어렵습니까?
- ⑤ 자신의 감정을 늘 통제하려고 노력합니까?
- ⑥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 ⑦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까?
- ⑧ 당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울타리의 존재는 안과 밖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만의 울타리가 있다. 스스로에게 자랑스럽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타인은 모르는 자신만의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이것을 연구자는 ‘결핍’ 이라고 본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결핍이 존재하며, 그 결핍이 울타리를 만들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아를 형성하는 테두리를 만든다.

작품 7. <OVER THE FENCE>

60 x 73cm, acrylic painting, 2018



연구자의 작품 <OVER THE FENCE>는 ‘결핍의 울타리’ 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작업이다. 울타리 안에서 밖을 꿈꾸고, 울타리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 어쩌면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숙명일 것이다. 경마장의 말들을 보면 복잡한 생각에 젖어들곤 한다. 처음에는 말을 그리고 싶다는 단순한 의도에서 실제로 관찰하려고 경마장을 찾았다. 말을 볼 수 있었고, 말의 움직임, 근육은 상상보다 훨씬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한참을 요동 없이 관찰하였다.

이 시점에서 연구자는 말의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경주마는 경주 직전 트랙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때로는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경주가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날아오를 듯이 달렸다. 경주가 끝나면 편안하게 트랙을 걸어 나왔다. 경마의 등수는 말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그건 인간들이 정해 놓은 서열이다. 말은 자신의 울타리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부정하지도 못한다.

말이 달리고 있는 곳이 그의 울타리인지, 걸어 나오는 곳이 그의 울타리인지. 모호하게 느껴진다. 단지 말에게 울타리는 살아있는 그 자체로 보인다. 더욱 분명하게 그런 느낌을 느낀 순간이 있다. 물론,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개인적 감정이지만 너무도 선명한 영감을 주었다. 경기가 끝나고, 트랙을 돌아 나오는 말을 관찰하였다. 말은 후련해 보였고, 담담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있는 쪽을 바라봤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것을 느꼈다. 나 혼자 그렇게 느낀 것일 수도 있으나, 말의 목소리가 들려 오는 것 같았다.

**“거기서 나와. 조금 있으면 거기 병커 생겨.”**

그 순간에 들린 음성은 무슨 뜻이었을까?

거기는 내가 있는 울타리일까? 병커는 나의 한계일까? 아니면 트라우마? 나는 어디서 탈출하여 어디로 가야 할까? 왜 나는 말을 통해 너무도 선명한 소리를 들었을까? 그 순간에 모든 나의 환경, 상황, 마음 상태를 돌아보았다. 자신을 객관화한 중요한 시점으로 기억된다.

“당신의 예술에 그럴듯한 의미와 개념을 붙이라!” 20)

관례화된 미술대학의 압력은 고급 예술에 대한 의문을 완화하지 못한다.



예술은 오랜 기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일에 의문이 생기는 순간 시작되곤 한다. 강제되거나 수용이 유일한 미덕으로 여겨지던 것에 고독한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예술이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밑에 견고한 지지대가 필요하다. 깊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다. 역사는 늘 그 지점에서 새로워진다. 내가 경마장의 말을 보고, 그 순간의 강력한 영감을 선을 통해 박제한 작품이 <OVER THE FENCE>이다. 한계를 향해 돌진하는 말. 살아있기 위해 자신을 극복하는 말, 그 순간을 돌아 나와 사람들을 응시하는 말.

그 모습을 압축적인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설명적이지 않은 직유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속도감 있는 드로잉을 통해 형상의 아우라를 전달하고 싶었다. 표현을 통해, 작가가 느낀 감정처럼 감상자 스스로 자신의 울타리와 마주하기를 바란다. 살아있기 위해 각자는 울타리가 필요하고, 또한 다시 살아가기 위해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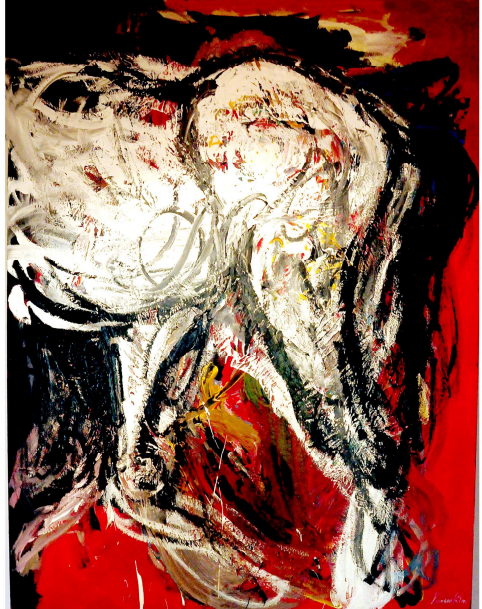
“거기서 나와.  
조금 있으면 벙커 생겨.  
하지만 난 내가 다시  
돌아올 걸 알아.”

경마장에서 달리고 있는  
말이 꼭 나 같았다.  
경주루에 들어가기 싫어  
아무리 거부해도 말은  
또 달리고 있었다. 아니  
날고 있었다.

[참고 자료 14] 김연수,

OVER THE FENCE 연작이  
설치되어 있는 전시장,  
나의 이야기, 질문지가  
함께 공유되고 있다. 2019

20) 심상용, 『아트테이너- 피에로에 가려진 현대 미술』, 옐로우 헌팅독, 2017, p.66



- 작품 <OVER THE FENCE>와 함께 볼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자아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 ① 굉장히 동경했던 것을 혐오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② 한 번 혐오한 것은 계속 변함없이 싫다고 느껴집니까?
- ③ 자신을 둘러싼 규범이 편하게 느껴집니까?
- ④ 자신의 환경은 언제 불행했습니까?
- ⑤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서 좋은 사람입니까?
- ⑥ 자신의 울타리 밖은 위험하다고 느껴집니까?
- ⑦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 ⑧ 부모의 결혼이나 이혼이 당신의 책임으로 느껴집니까?
- ⑨ 국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IV. 맺으며

‘결핍’ 과 ‘강박’ 은 연구자에게 언제나 생명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나는 늘 스스로의 결핍 상태를 체크한다. 마치 결핍을 필요로 하는 사람처럼 인식한다. 영감은 억지로 끌어낸다고 나오지 않는다. 삶 속으로 뛰어들 때, 삶을 이해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할 때 생겨난다. 그 처절한 노력만큼 작품을 하는 과정도, 보는 과정도 진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화는 물질적으로 다소 그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기름을 사용하는 점에서 수채화나 아크릴, 건재료보다 확실히 수정이 오래 걸린다. 색깔이 살짝만 섞여 들어가도 금방 탁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어린 아동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재료이다. 이러한 유화의 한계와 강박(재료 상의 어려운 점)을 많은 화가들이 느꼈을 것이다. 화가 스스로 느끼는 강박적 아쉬움은 반드시 실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물질적인 특성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유화 물감 이외에 다양한 재료는 무수하게 많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유화 물감이어야만 하는 강박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완벽한 미술에 대한 열망이 버무려지면 미술가를 극단적으로 몰아갈 만큼의 **반복 강박**을 느끼게 된다. 반복 강박은 과거의 경험, 억압된 본능 충동을 회상해 낸다.<sup>21)</sup> 하나의 예로, 어린 아동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내면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아동 미술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신호이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색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특이하게도 극심한 강박에 사로잡혔던 화가들이 중국에서는 빨간색, 검은색을 두드러지게 사용한다. 따라서 ‘반복 강박’은 치료과정을 통해 억압을 느슨하게 풀 후 자기 표현으로 잘 이어져야 한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미술가들은 반복 강박에서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놓쳤다고 할 수 있다. 신경증 환자들은 보이지 않는 악운에 의해서 쫓겨

---

21) 『정신 분석학의 근본 개념- 프로이트 전집』, 윤희기, 박찬부 옮김, 1997, 286~289

다니거나, 모종의 악마적인 힘에 사로잡혀 있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이들 운명의 대부분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 낸 환영이며, 환영의 근거는 유아 초기에 받은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이한 정신적 특성이 미술가에게는 작품에 투사되어 강인한 힘을 뿜어낼 수도 있다. 그 순간에는 충동적으로 생의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반복 강박으로 이어지면, 불편한 내면의 기억들을 수시로 끌어내게 된다. 프로이드는 꿈과 검열에 대해 설명한다.<sup>22)</sup> 쾌락(여러 종류의)을 추구하는 욕망, 즉 리비도는 자기의 대상을 아무런 제약 없이 선택하고, 금지된 것을 열렬히 선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미적 교육을 통해 부정적이라 판단되거나, 관습적인 제약을 위반하는 것들이다. 그 안에서 증오와 열망이 동시에 날뛰게 되는데, 그 강력한 소망이 에너지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술가를 포함해 인간은 자기 소망이 스스로를 통해 재검토된다. 혹은 외부 요인으로 검열될 수 있다.

즉, 미술가들이 창작 과정에서 느끼는 리비도(창작의 희열)는 중요한 양면성을 가지게 된다. 자신을 극복하는 감정인 동시에 강력하게 검열하는 이중의 열망이 부딪힌다. 예술에 대한 열망이 강한 미술가일수록 강박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요컨대, 창작의 본질은 작가 스스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느끼게 하는 것에 있다. 그것이 그림이든, 숫자든, 문자든, 영상이든, 작가들은 시각적인 것을 보고 삶을 되돌아본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이 미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식되는 ‘결핍’은 비로소 재능으로 승화된다고 믿는다.

‘이성적인 사유에서 벗어나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자는 크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선의 교의 중 일부이다.’

---

22) 『정신 분석 강의- 프로이트 전집』, 임흥빈, 홍혜경 옮김, 1963, 194~196

중요한 것은 미술에 대한 열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의 영역은 인류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유’라는 위험한 단어로 모든 것이 허용되거나, 치유의 목적이 아닌 위험한 계몽이나 현실성 없는 고고한 학문으로 도태될 수도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자신의 미술 작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었다. 미술이 가진 상징적 체계로만 내면의 많은 이야기를 표현하기는 어렵다. 공유하기가 수월하지는 않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신 의학 내용들과 연구자 내면의 치유 과정을 낱알이 드러내기로 한 것이다. 실제 전시장에서 질문지를 제시하여 감상자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었고, 감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깊은 내담도 병행하였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 수집하고 있으며, 충분한 분량이 되었을 때, 후속 연구로 수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여성, 보호, 생명’의 키워드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후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연구 또한 이 출발점에서 시작될 것이며, 그 속에서 인간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그러나 사회적 활동에서 종종 이를 망각하는 인간 본성들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 연구자는 미술 실험을 통해 도출된 가능성을 전제로, 인간 안에 내재하는 폭력성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후에도 인간의 ‘결핍과 강박’을 주제로 사회 구성원들과 치유 과정을 공유할 것이다. 연구자만의 실험이 아닌, 감상자들과 공감과 호흡으로 한계가 없는 무한한 적극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루스 베리. 『30분에 읽는 프로이트』, 이근영 역, 중앙m&b, 2003.
- 심상용. 『누락된 의제- 오디세이, 포스트-코로나로 가는 길목에서』, 대구 사진 비엔날레, 2021.
- 심상용. 『아트테이너- 피에로에 가려진 현대 미술』, 엘로우 헌팅독, 2017.
- 이수정, 김경옥.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 -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과 프로파일러 김경옥의 프로파일링 노트』 2016.
- 이은영. 『살인중독 - 사형수 유영철의 편지 모음』, 월간조선사, 2005.
- 임홍빈, 홍혜경 옮김. 『정신 분석 강의- 프로이트 전집』, 1963.
- 윤희기, 박찬부 옮김. 『정신 분석학의 근본 개념- 프로이트 전집』, 1997.
- 존 브래드 쇼. 『상처 받은 내면 아이 치유』, 오제은 역, 학지사, 2004.
- 존 브래드 쇼. 『가족 -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 오제은 역, 학지사, 2006.
- 존 브래드 쇼. 『수치심의 치유』, 한국 기독교 상담 연구원, 중앙 m&b, 2016.
- 최성애. 『나와 우리 아이를 살리는 회복 탄력성』, 해냄, 2014.
- 최수형,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003.
- 카를라 레이 풀러. 『이안, 경계를 넘는 스토리 텔러』, 윤철희 옮김, 2019.
-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의 근본 개념- 프로이트 전집』, 윤희기, 박찬부 옮김, 1997.
- 피에르 바뵁. 『프로이트, 20세기의 해몽가』, 이재형 역, 시공사, 1998.
- E.H. 콰브리치. 『서양 미술사』, 백승길, 이종승 옮김, 예경, 2003.
- 프로이트. 『정신 분석 강의- 프로이트 전집』, 임홍빈, 홍혜경 옮김, 1963.

## Abstract

# Study on Making Images and Questions to Help People See Their Deficiencies and Obsessions Themselves

Kim, Youn-Soo

Master of Fine Arts in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images to help people see their hidden desires themselves. In the process of making images, it is possible to see your own deficiencies and obsessions. It's hard to accurately recognize your emotions without practice and a medium of expression.

Unwanted situations often occur without realizing it in an effort to express those emotions and find relief.

It's because our unwanted emotions instinctively find any medium to project as an outlet, we often unleash them in an unhealthy



manner. There are pros and cons to expressing deficiencies and obsessions, because there are good feelings and bad feelings. We can show our violence to those weaker than ourselves, like animals, children or women. Sometimes there is no true care but we can use all emotions, even negative ones, or violent ones as proofs that we love or are loved. We can dominate weaker beings and want to make sure about our force through them. Sometimes we can use weaker beings as objects. When we try to forget our painful memories, rather than find a healthy way to express them, We can repeat the same kind of objectifying mistakes.

So I wanted to make our own violent control, and our compassion, confirmed through artworks as a medium. Artworks can be a good medium for expressing all emotions. Artworks can be seen for a long time and can be more comfortable to see than humans or animals. Due to the material, we can think for a long time and shift our thoughts and feelings by coming to terms with the physical representation of them in artworks.

Sigmund Freud recognized that humans have common things in their spirit. He found the common things in their spirit are linked with their childhood. And when we become adults, we can show our hurt as anger or stressful anxiety. This can cause crime or spiritual disease. Many artists feel this pressure in the art process. We need to recognize our wounds and the exact reasons why we are hurt.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eautiful feelings about other people and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al the obsessions and deficiencies. We need to practice to express our happy sentiment and separate danger from our inner spirit. A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total process and also is

the reason why we have psychiatry in society. In every kind of art (literature, cinema, art) there is a viewpoint. That's the key why we need to do our art. Because the originality of each piece is an expression of the human spirit. We are different but we have common ways to feel something especially when we are in safe or dangerous situations.

This study focused on recognizing our changeable mind. It can be treated with awareness of our deficiencies and compulsions. We can be a safe or dangerous person. This study provides images and questions about spiritual problems. It means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our spirit. Images are fixed but we can feel that image in various ways. It is the potential character of art and artists need to permit changeable impressions.

Capitalism makes us feel economic value when we see artwork or beautiful women. Artwork and woman are not objects or symbols of wealth. This objectification links Capitalism and sex. Through early marriage systems and online sex crimes we see the scapegoats of capitalism and sexual repression are most often girls. Through war, we have proved it many times. Capitalism and gender issues are still ongoing in this era.

We need to restore our thoughts through healing. Spiritual purpose becomes more important when we do art and we love women. Because spiritual purpose is the symbol of life.

The questions of this study help people catch their inspiration about life whether it is dangerous or safe. Images and questions are just the medium, aiding the connection between us and our inner spirit. Unconsciousness is very changeable and we can't know it exactly, until it comes to the surface. So it can dominate

us invisibly. Therefore if we want to cure our spiritual wounds, we need to objectify our memories about our parents or our childhood. If we can't objectify our wounds, we can repeat the same mistakes. We can hide our horror about sex, until it may express itself as insane, aggressive behavior. Sometimes we can forget memories to survive and imagine something else. Sometimes we can't speak for fear or shock. However, eventually the total process is the evidence that we always try to survive.

Sexual abuse is the most shameful violence. It can cause anger and make us exhausted and tired. Human has sadism and masochism in our spirit. Because of that sadism and masochism we always share our pain with each other but sometimes we don't know it.

Feeling of horror, anxiety, and guilt affects our behavior a lot. Emotional intelligence contains adaption and resistance so we always have to check our spiritual situa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positive influences of self checking our spirit.

**keywords : Unconsciousness, violence, dominate, spirit, deficiency, obsessive, sex, capitalism**

*Student Number : 2013-21204*